

속 기록

- 회의명 : 제392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5. 2. 28(금) 14:00~17:55
-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홍성태 위 원 (인)
- 불참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1. 성 원 보 고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오늘 다들 참석하신 것 같아요. 제39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지금 출장중이셔서 우리 위원회 정관 제9조에 의거해서 위원 중에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효은 노조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했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 문학지원팀 차건주 대리를 포함해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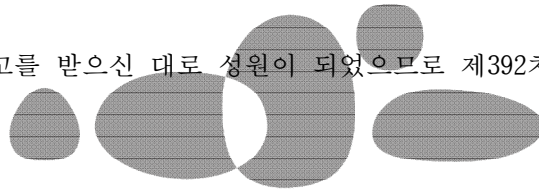
먼저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차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미리 자료를 보셨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이요. 그래서 회의 진행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우리 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성기숙 위원 : 아까 조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상당한 분량의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이 있고 중요한 회의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규정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부재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오늘 정병국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신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미국 신규 파트너십 기관 발굴을 위한 출장입니다.

성기숙 위원 : 예.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5년 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 추가공모 대상 결정의 건 등을 포함해서 8건의 의결안건과 9건의 보고안건이 있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사무처장께서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그간 대면회의 1건 그리고 서면의결로 한 회의 2건이 있습니다. 1월 24일에 개최한 제389차 전체회의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어서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되었고요. 2월 14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390차 전체회의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18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391차 전체회의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어서 2건 모두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난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12호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나영 문학지원팀장이 온라인 화상 보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안건번호 제1112호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대상 결정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은 그동안 문학 작가의 발간, 발표를 지원했던 사업에서 이런 1차 지원들은 광역재단의 역할로 두고 중앙기관으로서 후속 집중지원의 개념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올해 새롭게 개편한 사업입니다.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을 집중 지원해서 창작지원금은 물론 문학 현장에서의 후속 활동 지원 특히 예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문학 플랫폼인 ‘문학광장’, 오프라인 축제인 ‘문학주간’ 또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창작 공간을 간접지원하고요. 이러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서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873건이 접수되었고요. 이 중에 지원신청 서류를 미제출했거나 필수 자격요건이 미충족 되는 24건을 제외한 849건에 대해서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1차 심의 같은 경우에는 문학 안에 세부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총 8개 세부 장르별 분과로 나뉘서 총 24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 건수의 2배수인 60건을 1차 심의에서 선정하였고요. 2차 심의는 60건을 통합 심사해서 최종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차는 세부 장르별로 분리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2차 심의 안내 과정에서 전담심의위원의 제척사항이 1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에서 즉시 배제를 하고 2차는 4인의 심의위원께서 평가를 진행하셨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자료로 같음하고요. 전체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분야별 신청비율에 맞춰서 최종 목표 건수를 배정하였고요. 이 중에 30%가 넘는 시·시조의 경우에는 소수 장르에 조금 더 안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30건에 6억 원을 결정하였고요. 심의 제척·회피는 총 24건 그리고 비수도권의 선정률은 33.3%입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3월 첫 주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우리가 알다시피 문학은 비상임위원이 현재 부재중이잖아요.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예,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우리 심의위원 구성과 풀이 비상임위원과 사무처에서 1에서 1.5배수 추천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요. 문학 분야 같은 경우 어떤 절차로 되었을까요?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문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심의위원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들을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 풀 안에서 추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전체 문학 분야 심사위원 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아니요. 세부 장르에 맞춰서, 그 세부 장르 안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작위 추첨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시, 소설, 동화 등 세부 장르들이 있는데 그 내에서 무작위 추첨이면 기존에 전담심사가 아니었을 때 심의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예. 1차 세부 장르 심의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을 했고요. 2차 심의에서는 전담심의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무용 분야인데 문학에 계신 분들이 현재 문예위의 문학 분야 비상임위원이 없는데 심의 관련해서 관심이, 우리 예술 공연계 또는 예술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상임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해 오셔서 제가 오늘 전체회의에 가니까 여쭙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왕치선 위원 : 이 부분은 전담심의회에서 계시면 저희가 그냥 일임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안 계시고 저희가 잘 알지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은 심사위원들을 특별 장르별로, 속된 말로 뽑기를 했다는 게 약간 심사 받는 분들이 아시면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관여하실 분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위원님,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심의위원 풀 자체가 한번 검토를 거쳤고 위원회 의결을 하면서 두 번째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심의위원 풀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심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에 참여할 때 장르별로 비상임위원이 참여하고 문화일반에서는 참여를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심사할 의사도 없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다면 죄송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김진각 위원님께서 문화일반에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반대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이 제도에 개선방안이 나왔을 때 한번 더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왕치선 위원 : 제가 자격이 없거나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가능하면 그 장르 위원님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임하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문학 담당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받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성기숙 위원 : 심의와 관련된 게 아니고 부가적인 것인데요. 지금 장르 위원은 다 선정된 것 같은데 문학 분야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송시경 사무처장 : 안 그래도 문체부와 얘기를 할 때 “문학 분야에 대해서 위원을 선임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렸습시다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1113호 2025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 추가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교류협력팀 김의숙 차장님 나와 계신가요?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교류협력팀 유병은 팀장이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5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 추가공모는 총 4개의 협력 기관과의 레지던스 운영과 관련해 이루어졌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2건에 대한 선정 결과에 대해서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 37건이 신청·접수되었고 4건의 행정결격을 제외하고 33건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6인의 심의위원들이 후보군을 선정하여서 협력 기관에 각각 최종 선정을 의뢰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레지던스별로 지원심의 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후보군 중에 최종적으로 1건을 협력기관에서 선정하였는데 일본 ‘K-BOOK진흥회’ 는 ○○○씨

로 지원액이 100만 원이고요. 인도네시아 ‘코뮤니타스 살리하라’는 ○○○씨 110만 원으로 선정하였고요. ○○○씨를 예비로 선정하였습니다.

각각 사업의 직접 보조금은 선정자에게 항공료나 기타 리서치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일반수용비로 레지던스 지원 비용으로 ‘K-BOOK진흥회’는 1,600만 원 가량 그리고 ‘코뮤니타스 살리하라’는 420만 원 정도 직접 협력기관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지금 보면 두 가지인데요. 결정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과연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청자격 같은 경우에도 문학과 공연예술 같은 경우 무용하고 음악으로 한정했다는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응당 저희가 준비해야 될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보조금은 항공비나 소액의 회계검증 수수료 등 선정자가 직접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실제로 레지던스 기간 동안 그 레지던스 안에서 사용될 비용이나 보조될 비용은 협력기관에 프로그램 보조비용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K-BOOK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레지던스를 진행하니까 1,600만 원 가량 번역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요. ‘코뮤니타스 살리하라’는 1개월 정도 리서치 비용과 워크숍에 참여하는 비용 등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42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코뮤니타스 살리하라’와 신규로 MOU를 맺어서 첫 번째로 보내는 해인데요. ‘코뮤니타스 살리하라’는 일종의 아트센터입니다. 그 아트센터 안에 전시회도 있고 각종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은 관계로 올해는 ‘살리하라 아트센터’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음악과 무용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6월에 진행되는 댄스포커스 워크가 있는데 그 안에 워크숍이 들어가면 좋겠다. 일종의 레지던스 기간에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협의가 돼서 올해는 무용과 음악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협력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연극과 전시가 융합되는 축제가 격년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뮤니타스 살리하라’가 문학과 관련한 워크숍으로도 유명한 아트센터라서 차후 진행될 때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협력기관의 올해 중점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문화일반에서 심의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29쪽을 보시면 심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총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평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 속에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건 앞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총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대효과를 설명하는데 “창작의 구체성이 있는지?”, “향후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를 살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향후 기대효과는 아마 심의위원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량평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예술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발표하는 사람이 “나는 기대효과의 정의를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의 수나 국제전시의 참여 가능성 등 정량적인 지표가 준비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설왕설래의 가능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릴까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본 것은 첫 번째로 40%에 있는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고 사업계획의 타당성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신청

자는 본 사업의 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프로젝트의 결과가 있는지?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하라는 게 있다면 제가 문학을 몰라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만 딱 잡아서 장르 부문의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누구라도, 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아마도 제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심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을 임시조직이나 TF 조직을 구성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숙 위원 : 김의숙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장도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오셨죠. 이 자리에 감사실에서 동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범 감사님과 정영순 실장님이 같이 배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해외레지던시프로그램 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1월 초에 교류협력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어떤 사업이냐?” 거기에 적정한 위원을 추천하려고 여쭙봤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코뮤니타스 살리하라 아트센터’ 하고 협력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설계가 어떻게 되냐?” 라고 배경을 여쭙보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해외출장을 갔다가 오신 것을 토대로 하셨습니다.” 저는 무용 분야니까 궁금했기 때문에 출장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보고서가 저한테 왔고요. 이것은 이메일로 저한테 온 내용입니다. “해당 국외 출장의 가장 큰 목적은 국회지정사업,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추진되는 코리아웨딩 사업이 현지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 이라고 구두로 설명했고 문서로도 왔고 출장보고서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인도네시아 ‘코뮤니타스 살리하라’ 레지던스프로그램인데 출장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연극 분야의 위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국회지정사업으로 간 국내의 음악극 단체가 간 공연을 보러 가신 것이고요. 출장 보고 내용도 1~2줄 있었는데요. 아주 부정적인 평가로 되어 있었고요. 출장보고서에서는 연극 분야의 이훈경 위원님의 평가가 있었고 김의숙 차장님은 없었고요. 현지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직원 1인이 평가를 했는데 그것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지정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간, 그런데 그 자체의 내용을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무용 분야하고 관련이 없고요. 지금 레지던시 지원사업이 무용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신 게 무용 분야도 아니고 다른 분야거든요. 그리고 국회지정사업으로 간 것도 연극도 아닙니다. 음악입니다. 이 조합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입니다. 29쪽을 보면 문학이 2개, 무용 1개, 음악 1개, 문화일반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무용 외에 다른 분야도 협력기관과 매칭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 출장을 가서서 그곳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진행되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32쪽이 되겠습니다.

무용 분야는 제가 2명을 추천하면서 교류협력팀에 만약 이분들의 일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십사 했는데 연락을 주시지 않았고요. 무용 분야는 1인이 선정된 것으로 있는데 심사위원이 기피된 것으로 이 회의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면 최적화된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하면서 시간이 안 된다면 더 추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후속으로 연락이 없었고 실제 1인이 선정되었는데 무용 분야는 심사위원 1인이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사무처에서 답변 전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훈경 위원 : 끝나신 줄 알았습니다.

성기숙 위원 : 무용 분야는 그래서 ‘○○○’ 라는 분 1인이 추천되었습니다. 36쪽에 보면 심사평 중에 중간 바로 밑의 문단을 보면 “무용 분야의 인도네시아 ‘코뮤니타스 살리하라’ 는 주최 측에서 제시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교육, 공연 관람, 리서치 등)에 참여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교류-예술적 수용을 통한 창작활동의 접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신청자의 계획서에 초점을 맞춰서 심의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한테 이미 인도네시아 코뮤니타스 살리하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사를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절차상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을 묻고 싶고요. 이것을 우선 교류협력팀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설계되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비전공하신 위원이 이 부분으로 해외출장을 갔고, 전혀 맞지 않아요. 음악극을 보셨고 선정한 협력단체 기관은 무용 분야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비전문위원이라고 저를 지칭하셔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계셔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회지정으로 들어왔던 음악극 아니고요. 오페라로 들어왔고요. 그 오페라가 국회지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뮤지컬 형태의 오페라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음악이나 무용, 연극 중 1인이 가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돼서 연극 분야가 극 스토리 위주로 공연의 연출적인 성향을 보기로 해서 제가 갔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위원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2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2페이지 어상의 보고서를 제가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간 것은 정확하게 오페라에 대한 현장평가를 하러 갔던 것이고요. 간 김에 교류협력팀에서 “살리하라에 있는 문화재단과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간 것이지 무용 레지던시를 얘기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고 그 후에 살리하라에서 그쪽은 무용과 문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지 처음부터 무용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주목적은 레지던시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장이었기 때문에 간 김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력이 있다면 묶어서 결과를 내보자고 해서 그쪽에 있는 재단이나 여러 군데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의 결과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여쭙았는데 아직 오해가 다 안 풀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로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제 보고서를 보시면 레지던시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갔다가 왔다는 정도만 들어가 있고 저는 오페라에 대한 전반적인 조명, 연출, 음악, 의상, 연기 등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우리 김의숙 차장님 답변 전에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서 사무처에도 제가 여쭙습니다. 제가 출장보고서를 봤을 때는 한국 음악오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자료에는 한국음악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에서 한국음악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의 문구 사용과 용어를 통일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돈이 없게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훈경 위원님이 확인하셨다시피 해외레지던시하고 관련된 것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출장보고서에는요. 그리고 2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장보고서를 쓰면 개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사진이 들어가죠. 관련 사진이 거의 한 페이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어

다에 갔다는 게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하고 관련된 평가는 2~3줄이었던 게 확실하고요. 그것도 A4에 쪽 된 것이 아니라 칸을 쳐서 2줄이니까 그것의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훈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레지던시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무처에서 저한테 이 부분을 문의했을 때 이메일로 온 것에는, 이 출장의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웨딩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러 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해외레지던시 심사위원 위촉 관련 질문했을 때 답변으로 온 것은 해외출장을 토대로 그쪽에 가서 검토하고 점검한 것을 토대로 레지던시 사업이 설계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오류 내지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허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연중 감사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관실이 오늘 동석하셨으니까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의숙 차장님이 답변할 기회가 너무 지연되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예. 일단 무용 분야 심사위원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용 분야는 ○○○씨와 ○○○씨 2명이 심의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씨가 기피를 했다는 건 ○○○에 관해서만 기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는 2명이 했고요. 직접적인 지인은 아니나 혹시라도 시비에 걸릴 수 있겠다 싶어서요. 남편의 지인인 관계로 ○○○이라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기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 2명이 참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우려하신 점. 심사평에 문구를 읽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 참여를 해서, ‘살리하라’ 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레지던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문구가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우려나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문구가 작성된 것은 심사위원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오해가 될 수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팩트 자체는 ‘코뮤니타스 살리하라’에서 한국인이 참여하는 레지던시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민간재단인 관계로 어떤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하는 프로젝트나 레지던시는 한국과 처음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에 진행될 레지던시가 최초라서 기존에 누군가 참여했던 사람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심사평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국회지정사업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입니다. 코리아웨딩은 공교롭게도 작년까지 4회 연속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마다 그 사업을 교부할 때 쉽지 않게 승인을 얻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모니터링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말씀 중에 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2가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예.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구문모 위원 : 죄송한데요. 팩트는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서승미 위원 : 너무 할 게 많은데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다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성기숙 위원 :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차장님의 장황한 설명이 있어서 팩트 중심으로 짧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9쪽의 문학, 무용, 음악, 문화일반에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전

부 다 해외출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아닙니다.

성기숙 위원 : 그것만 그렇게 하셨나요?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아니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덜 장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뮤니타스 살리하라’는 2019년에도 옆자리에 계신 이한신 본부장님이 출장을 갔고 출장보고서에도 사업을 제휴할만한 기관으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예술꽃밭이라는 단체가 자체 협력으로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차장님, 36쪽에.

김진각 위원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성기숙 위원님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무처에서 성기숙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세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데 여기에 잡혀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회의가 어디에 있어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러면 이렇게 하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건이니까요. 차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해외 무용분야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모니터링 간 것을 토대로 설계되었다고 사무처에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해외출장을 가신 것은 연극 분야에서, 무용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가셨고요. 무용과 관련 없는 한국오페라 지정사업으로 참관을 하셨고 엮어진 것은 무용 분야고 프로그램이 엮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훈경 위원님 말씀처럼 레지던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외출장자 선정도 위원장님이 우리 이훈경 위원님께 “가실 의향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의뢰를 해서 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무용 분야의 전문가가 가는 게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외출장보고서를 추가로 요청을 드린 게 있으니까 추후 사무처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이훈경 위원 :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2줄밖에 안 써서 마치 제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평가서 공유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포함 4페이지 이상을 썼는데 자꾸 2줄밖에 안 썼다고 하시니까 제가 일을 안 하고 온 것 같잖아요. 평가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그리고 이 공연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기숙 위원 : 서승미 위원님도 여기서 출장을 가셨습니까?

서승미 위원 : 출장 갔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네요.

서승미 위원 : 쪽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왜 무용으로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출장을 다녀왔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연극 쪽의 종합 예술을 하는 분이 모니터링 하는 게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용은 오히려 국수호 선생님 무용단에서 일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쪽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니 제가 한 말씀드려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외출장 공연을 두고 출장 갔다가 온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이 기관. 커뮤니티스 살리하라 아트센터 하고 결합된 사업설계가 되었는데 서승미 위원과 이훈경 위원님이 출장을 가신 것은 국회지정사업으로 간 해외 공연을 보러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설계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관하고 된 것이라서요. 기관하고 관련 없는 것을 출장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설계되었다고 답변한 것을 제가 의문시한 겁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타당해요. 타당한 문제 제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류협력팀에서 자료를 내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돌아오시면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 들으시고 문서화해서 다음번 회의 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성기숙 위원님께 보고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요. 오늘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점을 덧붙여서, 뭐 이 안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왕치선 위원 : 차라리 이 건은 여러 과정보다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의 커뮤니티스 살리하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지명도나 예술성이나 퀄리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요. 차라리 지금 성기숙 위원님의 질문과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다 공유해 주시고 의결은 저희가 차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의결은 그것과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국회지정사업으로 나오면서부터 문제의 근원을 달고 나왔던 것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송시경 사무처장 : 두 가지인데요. 사무처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고 메일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회지정사업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두 번째 설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설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교토작가 레지던시, K-BOOK진흥회, 커뮤니티스 살리하라, 에든버러에서 위의 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다 가고 내부의 보고를 거쳐서 결정하고 난 다음 지난번에 “국제사업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에든버러 모멘텀 같은 경우도 간 적도 있지만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다 가시거나 본부장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교류협력팀에서 가서 얘기를 다 듣고, 직접적으로 안 가더라도 얘기를 듣거나 직접 가기도 하는 속에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데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사무처에서 충분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시도록 하고요.

송시경 사무처장 : 예.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국회지정사업으로 해외공연을 가는 건 전부 다 위원님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나가나요? 그것도 의문이 생겼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무용 분야가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설계인데 왜 국내공연, 국회지정사업으로 모니터링 하러 간 것과 연관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레지던시 사업이 설계가 되었다고 하니까 의문을 가진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지금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시고요.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두 건의 안건을 의결했구요. 제1114호 공연예술대관료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38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1114호 2025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결정의 건입니다.

바로 3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예술계의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이 되었다가 2023년에 기재부에서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서 폐지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후에 2024년도에 현장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했을 때 외부에서 이 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일부 복원을 위해 기재부나 문체부 쪽에도 이야기를 했고 문체부 쪽에서도 뜻이 같아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부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창작공간 예산 중에 일부 대관료지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공연 제작비 중에 부담이 큰 대관료 일부 지원을 통해서 민간 공연예술단체나 개인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등록공연장이어야 합니다.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국내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공연활동이 해당됩니다.

사업예산은 민간경상보조 2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민간경상보조의 주관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모니터링 등의 비용이 일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역은 기초예술 분야 대관공연의 대관료 일부 지원이고 부가세는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스 안에 보면 대관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되는 범위가 있고 기타 홍보비, 연습실 사용료나 주차권 구입 등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크게 변화가 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져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페이지 사업 추진방향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복원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대관료지원사업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대관료지원사업은 기간별로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예산을 균등 분할 해서 해당 기간에 공연한 단체의 신청을 공연 이후에 받아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소액다건 사후·직접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연간 금액을 정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약간 관리 문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 지원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공연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게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무료 공연과 관계없이 지원함에 따라서 이 사업의 취지나 실효성 부분에서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최고액 내에서 중복지원이 무제한으로 됨에 따라서 일부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대관료지원사업은 선정률이 80% 정도가 됩니다. 별도로 예술성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으로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전에 단체를 공모하고 공연 후에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공모를 통해서 단체가 자격이 되는지? 대관 준비단계를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금액 부분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청 주체별 연간 1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주체별 총액 제한이 아니라 1건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2015년도 기준 예산이고 2022년도까지는 거의 예산이 50억 정도 규모에 달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너무 넓혀 버리면 너무 소액다건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대상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이 일반 아마추어, 동호회, 생활예술과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나 전문예술가 중심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무료공연은 제외하고 유료공연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선정하고 교부를 할 때는 반드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고 티켓판매 시스템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아서 그것을 확인한 후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 단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과연 이 단체가 생활예술단체인지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역재단이나 협회 등의 도움을 간간히 받아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서는 일단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올해는 공공지원을 받은 단체인 경우에는 금액이나 어떤 사업의 성격을 떠나서 일단 받지 않는 단체 중심으로 적어도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더라도 대관료 정도는 지원해서 공연을 좀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일종의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일단 그 방향으로 잡았어요. 공모시기는 연간 2회로 일률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41페이지 공모시기를 보시면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8월까지의 공연을 받을 예정이고, 다시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연말까지의 공연을 미리 받을 예정이네요. 문제는 지금 나가면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했던 공연들은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5년도 1차 공모는 사전과 사후의 부분을 다 열어서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식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유료공연이나 생각한 요건을 확인한 후에 교부신청 단계에서 교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분은 전체예산에서 시기별로 봤을 때는 60%, 40% 정도로 분배가 되었는데요. 공연판매 시스템을 봤더니 실제로 매출액 부분에서도 6대 4로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기적으로만 나뉘었을 때 하반기 2차 공모 때 들어오는 단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염두를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는 게 사무처의 판단입니다.

지원결정 부분은 원래 지원결정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장르별 최고 지원액을 조사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 금액들의 평균값으로 1,500만 원을 잡았어요. 결론적으로 1건을 지원했을 때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신청되면 상한선인 1,5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1,500만 원 이하로 지원신청이 되면 실비 지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직접 이 건을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처를 선정해서 그동안 해 왔고 마찬가지로 주관처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림이 41페이지에 나와 있고 4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각각 예술위원회와 주관처의 역할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번의 지원심의 관련해서는 심의기준 테이블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원대상이 되었을 때 배정된 예산 대비해서 전체 신청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포선으로 적용해서 나가야 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별 배분의 문제까지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2차 때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이나 협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통해서 자격심의를 해 보겠다는 내용을 유동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사전에 신청했을 때 제출서류와 선정이 되었을 때, 교부신청을 했을 때 제출서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사후나 사후에 계획단계에서 받아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1차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에 주관처 공모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의 예산 집행계획(안)을 제가 말씀드렸던 공연장대관료지원금, 민간경상보조 25억 1,800만 원과 별도로 주관처 비용 1억 5,000만 원 그리고 공모심의비를 일반수용비로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은 필요시에 들어갈 수 있는 심의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이한 것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붙임3 자료를 보시면 기존 대관료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첫 번째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예산액이 2015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균 지원금액이 나간 것을 보면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별로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 선정건수가 2,1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신청되고 선정될지에 대해서는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요건을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신청건수나 선정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1차 공모의 결과를 봐서 2차 공모 때 필요하다면 조금 더 요건 부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표에서는 보고를 드릴 게 단체와 개인선정 지원액인데요. 좀 특이한 점은 선정건수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2014년도에는 전체 선정건수의 약 11.48%를 차지했는데 2022년도에는 53%가 개인지원이 됩니다. 상당히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총액 현황으로 봤을 때는 선정건수 53% 대비해서 예산액으로 나간 것은 26% 정도가 된다는 게 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극이 거의 47% 정도가 되고 음악이 4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4%면 지원금액으로 봤을 때 6%가 남는데 무용이나 전통예술 쪽이 2~3% 정도의 포천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들었고요. 공모 신청접수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보통 공모를 신청하고 선정이 되고 나서 공연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일정들이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선정되고 실제로 공연할 때까지 기간들을 봤을 때 준비기간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까? 보통 7월에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이 되고 공연은 실제로 9월부터 12월 사이의 공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이 이대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수혜대상 단체나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거든요. 고민을 해서 접수기간 등을 했겠지만 여기 대상이 되는 자들의 일정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공모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안을 봤는데요. 지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각 공모마다 이미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가산점 또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의 가산점. 1점이든 2점이든 정량적 평가 때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공모안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지원사업은 공모를 보고 공연을 준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단체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준비된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에는 반드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간에 이것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저희 공고가 나갔을 때 “이제 대관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구조로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내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수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부에 대한 심의기준이 ‘여’ 라고 통과가 되어야만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한다면 일정 포션 부분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심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심사방식.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해당되는지 여부만 봅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서류적인 판단으로 정량평가만 한다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장애예술인에 대한 가산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우대사항에 관련된 서류 문서를 만들어서 복지카드나 장애예술인 증명을 제출해서 여기에 있는 지원신청서, 공연장등록증 사본 등의 문서들과 똑같이 처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고안 등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위원님, 이것은 가산점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요.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이 되는 단체가 적정한 금액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연장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단체와 같이 적정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요. 결국 드려야 될 단체의 지원 금액과 저희가 배정된 예산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 배분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드리고 덜 드리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 글썽요. 어떻게든 선정하는 기준이나 매뉴얼은 있을 텐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선정하는 방식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체크해서 대상자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그러니까 지원신청서를 내면서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공연장과의 계약서를 내 주셔야 되고요. 단체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소개를 내 주셔야 되고 실제로 그 여부를 판단해서 뽑으면 교부가 나갈 때 실제로 공연이 되었다는 내용만 증빙이 되면 기계적으로 나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뽑고 덜 뽑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기존에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지원을 받았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1년에 1번밖에 안 주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1,500만 원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동안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하면 주어진 예산. 그 주어진 예산의 비율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대관료를 2,000만 원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훈경 위원 : 아마 배은주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그것 같아요. ‘가’, ‘부’ 여부만 결정하는데 가산점을 넣는다고 해서 1점이나 2점이 추가된다고 해서 ‘가’, ‘부’ 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송시경 사무처장 : 맞습니다. 공연만 하면, 자격조건만 되는 다 드리는 것이고요. 장애예술인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보통 같은 점수 위치에 있었을 때 우선하는 식으로, 지역 우선이나 창작 우선처럼 그런 식으로 해 왔다는 말씀은 보충적으로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해당만 되면 다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미진 위원 : 잠깐만요. 예산이 초과된 적은 없었어요?

송시경 사무처장 : 있는 예산 내에서 쓰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도 다 못 썼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배분된 예산보다 초과되었을 때는 ‘가’로 선정된 모든 대관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낮춰서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기숙 위원 :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 중이잖아요. 의견을 한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초예술분야 작품 창작의 안정성 구현에 목표가 있고, 현재 순수공연예술 분야는 창·제작에 대한 제작 예산이 급상승하고 있어서 대관비를 지원하는 사업 자체의 취지나 목적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단위의 지원사업인지와 공공극장, 민간극장 모두 지원이 해당되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전국단위고 이것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공연 대관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역시 가능합니다.

성기숙 위원 : 예.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 사업계획안을 보면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창작성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개인 아티스트가 이런 창작성을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극장, 민간극장. 공공극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그렇고요. 이게 등록된 공연장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전국 시도별 공연장 등록이 되어 있는 민간극장 시도별 현황이 파악된 게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그런 기초 데이터를 놓고 지원사업 설계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감사합니다.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고가 나갈 때 창작성을 포함한 공연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국 문화시설 기반으로 문체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등록공연장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처를 뽑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주관처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 공연장에 대한 네트워크나 정보력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장르별로 등록공연장 이외에 다른 대안공간에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상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간에 대한 정의를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관료지원사업도 일단 등록공연장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고 공간 범위에 대한 대상, 등록공연장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등록공연장으로 한정해서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말씀처럼 고궁이나 ‘성균관 향교 서원진흥법’도 보면 유형자산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국가유산청의 ‘무형유산지원법’에도 굉장히 늘어나서 정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완고하게 생각했던 ‘공연장’의 개념은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열려진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서 사업설계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성 위원님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2022년까지는 무료공연을 포함했다가 2025년부터 유료공연만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전통의 국립이나 유산을 하는 곳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청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공고안에서 이렇게 주요 변경사항이 강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신청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고민할 때 선택했던 것은, 그래도 뭔가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공공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공연을 올리고 싶어 하는 단체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겠다고 해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했고요. 다만, 무료공연까지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공연장으로 한정했을 때는 무료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지불 의사가 본인에게 있다고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공간을 넓히면 유료공연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사업설계는 등록공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공연까지 넓히면 사업 취지를 달성하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공모는 유료공연으로 한정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것 중에 공공지원 작품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고민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지원 작품들은 그 안에 대관비가 설정되어 있고 이것을 또 받으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배제가 된 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료공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대관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한데 무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납부확인서 자체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배은주 위원 : 무료공연이라고 하면 티켓팅을 안 하는 공연.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수월성만 가지고 다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말하자면 수월성 말고도 공연할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중앙이나 지역에서 받은 것은 제외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관람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가지고 공고를 했고요. 적어도 프로답게 하려면 유료공연에 한하자. 왜냐하면 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90억이 나오는데 지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성기숙 위원님께서 열려 있는 부분으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등록공연장이 아닌 공연에 돈을 지원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안정성이 없는 공연장에서 기금을 받아서 공연하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설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예술환경이 변화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그러니까 고민은 투 트랙으로 해 볼 수 있죠. 전통적인 등록공연장으로 지원하는 형태. 또 우리가 공연이라는 장소성, 공간성의 개념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원화해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미진 위원 : 저도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보니까 다른 지원과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나름대로 조심할게 많잖아요. 조건이 맞으면 다 줘야 하고요. 그런데 굳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주관처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기존에도 그렇게 하셨는지? 그랬다면 어떤 단체가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수치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673건이 신청되었고 2,100건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선 정률이 80%에 해당되고 20%는 정말 결격 중심으로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결격 중심의 단체가 해당되는데요. 사실 사무처에서 이 건을 다 소화하기에는 담당자 1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공연장과 관련된 정보를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관련된 업체 전문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주관처를 운영하는 게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연장과 관련된 업체들이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극장협회 같은 곳에서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극장에 대한 가격 정보나 등록공연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KTL공연장안전지원센터나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게 맞겠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범위를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식으로 가고 메타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혹시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에 신청해도 대상이 되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이 사업은 공연장이 공공극장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단체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연을 했고 거기에 대관료가 나갔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 기준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승미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의결이 8건, 보고가 9건이 있는데요. 사무처에서도 약간 요점 중심으로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죠.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을 다 소화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파트에서는 요약해서 짧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부분 자료는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번호 제1115호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인데요. 이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안전번호 제1115호입니다. 지역예술도약지원 공모사업이고요. 이 건은 1월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보고를 드려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부분은 그동안 광역문화재단 14곳과 컨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업 내용을 반영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82페이지 불임1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된 변경사항이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을 따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맥락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단순히 신청률이 비수도권이 얼마나 아니라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단체의 비율까지 따지면 더 높을 것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술위원회의 역할 정립입니다. 예술위원회의 역할 정립이 지역과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창작지원을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이 사업이 도출되게 되었고요. 마지막 핵심이 기재부나 문체부와 협의할 때 설득된 것은 절대로 예술위원회가 직접 공모를 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재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직접 공모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된 것이 이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재단으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64페이지 사업개요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역을 제외하고 14개 광역문화재단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지원을 받았던 작가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 추천을 해 주면 그 안에서 심의나 인터뷰를 통해서 단체나 작가를 선정하고 2차 지원을 다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4페이지 테이블을 보시면 지원내용에 문학과 시각예술은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쪽은 특정 작품을 지원받는 단체가 되고요. 그래서 지원대상은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문학은 4억 원에 25명 지원 그리고 시각예술은 7억 6,000만 원에 14명 지원 그리고 공연예술은 34억 원에 약 29개 단체 지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65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의결이 되면 3월에 지역재단 관계자들과 모여서 사업설명을 할 것이고요. 3월 말까지 지역재단에서 예술위원회에 공문으로 각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별로 단체와 개인을 추천해 주면 개별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컨택해서 엔카즈에 직접 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지역에서 3명의 작가를 문학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심의대상이 42명밖에 안 돼서 심의대상이 좀 가벼워지고요. 시각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장르별로 해서 4개에서 6개 정도. 만약 4개를 추천받다고 하면 14 곱하기 4를 해서 56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과정에서는 서류심사와 신청한 모든 단체는 인터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단체와 개인을 뽑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초예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광역재단과 협력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문학이나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 쪽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같음하고 제가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을 주시죠.

이훈경 위원 :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함에 있어서 짚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재단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작품에 대한 2차 지원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관계자와 연관되어 있는 단체나 연관성이 있는 단체들, 연계성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인력 구성까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저도 한 가지 체크만 할게요. 65쪽을 보시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문예위 사업인데 예경센터와 연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한 겁니까?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참고로 상설협의체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도 참여하고 예경의 대표님도 참여를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의신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경의 유통 사업으로 연계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에서도 우수작품이 되었을 때는 국내에 투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 연계를 하겠다는 게 방향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격차 해소 등 국회나 어디든 화두니까 문예위에서 이런 사업설계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경하고의 관계성에서는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천한 단체, 그리고 기존 광역문화재단 지원 이력을 보유한 예술가 및 단체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광역재단에서 지원한 단체만을 한정했을 때 진입장벽이 높아서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은 단체들은 여전히 또 하나의 허들이 생긴다는 느낌도 있고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컨대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단체만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천하고 예술위에서 심의 해서 선정하는 단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양극화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도 관여를 하고 계셨던 건데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3년간 13개 도시가 선정 돼서 기초 인프라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도시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경 뿐만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 문화도시나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관계 사업들, 아직 설계 단계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창의적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속도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제 의견은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넓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감사합니다.

장미진 위원 : 기존에 좋은 작품을 추천받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작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작지원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제작지원단은 단체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그래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작품이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제작지원을 통해서 단체가 나중에 선정되면 직접 만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개별적으로 니즈를 파악할 것이고요. 그게 단체의 운영, 경영부터 홍보 아니면 어떤 연출이나 제작과정에서의 역량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담아서 과정에 붙어서 작품 제작을 탄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홍보나 모니터링 그리고 이후의 성과 관리까지 다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광역문화재단별로 어떤 심의기준이나 공정성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고 2024년도에 지원받았던 것을 올해 지원하고 2025년도에 지원받았던 것을 내년도에 지원한다면 결국 아무리 지역별 형평성으로 14개 지역에서 추천한 단체들이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작품이 어느 지역에서 추천한 단체가 되게 좋다는 칭찬이나 우

수사례 홍보·발굴도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재단에서도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심의기준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향식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예술 관련해서 지역예술도약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문화재단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자격이, 일단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 사업이고 예술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청자격도 2024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우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허들을 낮춘다는 것보다는 올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효과. “정말로 도약을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그게 제작지원이 되든 예경하고 네트워크가 되든 또는 지역 간에 소통이 되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각 장르 간 실질적으로 “이런 도약이 있었다.” 라는 결론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이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적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천은 광역문화재단에 전권을 주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그렇습니다. 광역문화재단의 책임입니다.

김진각 위원 : 예술위가 참여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천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상자가 없거나 단체가 없을 경우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대상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추천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고 이후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요. 류재수 본부장과 제가 직접 14개 재단과 통화를 했을 때 다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제작지원단 공고는 누가 내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저희가 냅니다. 제작지원단 공고를 내서 구성이 되면 그것을 관리하면서 전체 선정된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제작지원단은 컨설팅업체와 뭐가 다른 건가요? 제작지원단이 사실은 컨설팅이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한 달에 한번 우리가 모여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된다가나 압박감을 갖는 구조라서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직무 역할에 있어서 편안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좋은 말씀입니다.

성기숙 위원 :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설계를 할 때 전체회의가 효율적으로 속도감이 있도록 하려면 사업설계 단계에서 해당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내지는 논의 단계를 거쳐서 추진계획(안)이 나오면 오늘 이런 질문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봤을 때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상호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오늘 17개의 안건이거든요. 전자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17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해 보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이월하든지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음 회차로 이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무처에서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문모 위원 :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러면 보고안건은 다음 달로 넘기죠.

정영순 감사팀장 : 저희 감사 규정상 2월에 처리할 것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러면 감사안건까지만 보고안건으로 넣고요.

성기숙 위원 : 그게 무엇일까요?

정영순 감사팀장 : 감사 결과와 계획은 규정상 2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동의를 하셨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다음 안건은 제1116호 2025년 예술극장 운영계획(안)입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2025년 예술극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99쪽부터입니다.

첫 페이지는 기관의 미션, 비전 그리고 전략목표, 추진과제에 따른 예술극장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별 극장운영 추진 방향을 보시면 첫 번째 창작산실과 극장연계 및 다년지원 체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확산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극장 공간 및 자원을 시민과 함께하는 형태로 극장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꿈발극장을 직접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극장을 후원사업의 매개로 역할을 강화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는 올해 모바일 티켓을 운영하고 기후 프로젝트나 기관 경영모델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관 브랜드 가치 및 고객 만족 향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극장이 고객에게 최접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과 위원회 브랜드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환경 분석과 전년도 결과 환류를 반영해서 예술극장의 3대 추진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예술현장과 관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예술극장을 구현하고 극장 역량을 활용한 간접지원을 확대하며 공공극장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극장으로서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9개의 극장 과제를 수립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위원장님께서 사전 보고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추가한 지시사항들이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성’으로 아코코덴스필름이나 마로니에공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 중고등학생과 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리고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작품들을 영상화 작업을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19개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10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장의 핵심 운영 방안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102쪽부터 있는 예술극장 세부 추진계획(안)은 이미 다 보셨으므로 이 내용들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극장 운영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의 외연을 확장하고, 두 번째 기금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간접지원으로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 역량을 고취하겠다. 그리고 공공극장 역할 확대 및 아코코꿈발극장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의 외연 확장은 극장에서 하고 있는 공연 제작과 기획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극, 무용, 공연제작 및 미래형 공공극장의 새로운 가치, 기후위기 접근성, 다양성 등 3가지 가치를 기획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봄 작가·겨울 무대는 작가지원 중심의 프로젝트입니다. 연극을 기반으로 한 작가지원 프로젝트고요. 총 9개의 작품을 낭독공연을 통해서 단편밖에 써보지 못한 작가들이 장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작품들에 대해서 낭독공연을 제작하고요. 이 가운데 3편을 겨울에 완성작의 형태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코코 덴스&커넥션은 이전까지 연극 중심으로 제작 공연들이 운영되었는데요. 작년부터 아코코 덴스&커넥션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무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신진에서 중견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안무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많은 안무가들을 선정해서 4개의 작품들을 창작의 과정 안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중에서 예술극장에서 레퍼토리화 하거나 단체 레퍼토리가 될 수 있는 작품 2개 작품을 선정해서 다음 연도에 공연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작 공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공연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술극장의 주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식인

데요. 창작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작품을 제작할 때 장애, 노인을 포함해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고 그러한 작품들을 선별해서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기후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코로나라는 큰 재난 이후에 극장과 예술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예술가들과 함께 극장의 역할들이 기후 위기사대 또는 재난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함께 리서치하고 워크숍 하며 관객참여형 형태의 백스테이지 투어 등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백스테이지 투어에 중간 결과물들을 다음 연도에 작품화할 수 있으면 작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극장으로서 2년 전부터 몇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로소풍은 위원님들께도 가끔 카카오톡으로 안내했었는데요. 봄소풍과 가을소풍이 서울과 나주에서, 서울에서 봄과 가을 각각 4회 그다음에 나주에서 봄과 가을 각각 1회 해서 총 연간 10회가 시민과 함께 많은 어린이를 위한 공연 작품들을 극장 앞마당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댄스필름영화제를 시행했습니다. 무용 또한 비언어 예술작품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장르라서 댄스필름을 상영하고 거기에서 댄스필름들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무용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올해 댄스필름영화제를 댄스필름 공연예술제 형태로 바꿔서 무용뿐만 아니라 연극이라든가 다양한 장르의 실황 영상들도 같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극장 텃밭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진행할 텐데요. 조정하고 남은 지역에 텃밭을 가꾸어서 극장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과 함께 점점의 기회를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테이지 투어와 꿈쟁학교는 체험이나 진로학습 등을 고민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극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 중심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올해는 무용까지 넓혀서 총 10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각 5회 진행해서 총 10회를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르코꿈밭극장을 올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르코꿈밭 펀딩을 통해서 일단 4월부터 6월까지 시설 안전과 어린이·청소년에게 맞는 방식들로 시설 개선을 하고 이후에 어린이·청소년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들을 극장 안에서 매칭해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작품들 가운데 극장에 적합한 작품들은 레퍼토리로 하여 향후에 꾸러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간접지원으로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 역량 고취하는 창작산실 시즌제가 올해부터 운영됩니다. 사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해서 협의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예술극장의 기능을 확고히 다졌고요. 그래서 올해 신작을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제작과 관련해서 여름낭독시즌을 8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창작산실에서 대본공모가 이루어지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대본공모 무대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기획으로 2차 제작 시즌제가 운영되는데 11월과 12월까지 신작 가운데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시즌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봄 작가, 겨울 무대, 댄스&커넥션에서 우수 작품들을 창작산실과 연계하는 방식들의 지원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기획 운영입니다.

극장의 공간, 홍보, 무대기술 인력 등 간접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고 선정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동기획 작품은 사실 지원사업으로부터 탈락한 작품이라든가 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관료지원을 받지 못해서 작품을 올리기 어려운 작품들 가운데 극장의 가치와 함께 갈 수 있는 작품들로 올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작품을 선정했고 연극 4개 작품, 무용 4개 작품, 다원예술 1개 작품을 선정해서 올해 대관료를 받지 않고 수익금의 지분을 8대 2. 그러니까 공연예술단체가 80%를 가져가고 극장이 20%를 가져가는 구조로 해서 올해 공동기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극장 역할을 확대하고 아르코꿈발극장 연계 운영인데요. 올해 무대기술119지원센터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2명의 담당자가 대학로 인근에 있는 소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과정 또는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출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각 소극장에서는 무대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기술자들이 사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어렵기 때문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꿈발극장도 역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올해 대관이라든가 관객 안내, 티켓, 무대기술, 환경 개선 등 이런 인력들을 잘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중심 극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정도가 돼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르코극장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직접 운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꿈발극장이요.

이훈경 위원 : 예, 꿈발극장이요. 왜 직접 운영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하고요. 직접 운영을 저희가 했을 때 그만큼 인력이 가능한지? 항상 일이 포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극장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하실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 표에 보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명씩 4명인데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까 앞에 것과 약간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무대기술119지원센터 같은 경우 저는 대학로에서 항상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소극장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명기구의 도면화나 새로 들어오는 기계에 대한 기술화 시켜주는 것. 표 같은 게 배포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직접 보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를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회의자료에 이왕이면 2024년도 꿈발극장의 운영 현황이나 무대기술119지원이 어떤 부분에 가장 도움을 많이 줬고 요청을 했고 요청한 극장들의 관객 규모. 어디에서 제일 많이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2024년도 운영에 관한 것은 전혀 없어서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기술119지원에 대해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혹시 확장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일단 무대기술119지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매주 경영전략 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2024년도 운영 현황 결과보고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메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발극장 운영 현황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발극장과 관련해서 직접 운영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꿈발극장을 운영할 때 긴급하게 예산편성이 공연장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잔여예산이 10억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긴급 투입하는 과정 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래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극장에 대해서 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일러 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 현장에서 계속해서 “극장이 부족하다.”, “공공극장이 부족하다.” 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새로운 극장들을 대관해서 예술단체에게 저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는 아시테지를 통해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단체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이라든가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청소년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저희가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효과성 있게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알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요. 그 예술극장이 항상 연극이나 무용에 특화된 극장인가요?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특화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을 하니까 음악이나 전통예술 등 여러 장르가 포함돼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연장이 그렇다면 시민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특정 장르들만 포함되어 있는데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아무래도 극장이 연극과 무용 중심으로 장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음악 공연을 하기 위한, 국악이나 전통예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적 음향에 기술적 요인들이 필요한데 저희 극장이 사실 복합공간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국립국악원, 남산국악당 같은 해당 장르에 최적화된 공연장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도가 되었는데요. 다만, 창작산실 사업 안에서 전통예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다 포괄해서 극장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러니까 극장의 물리적 공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작품들은 적극 수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창작산실 시즌제를 하면서도 연극부터 전 장르를 포괄하는, 뮤지컬을 제외한 5개 장르를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중심으로 예술극장도 장르적 확장성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만, 대관은 그래도 연극과 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성기숙 위원 :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3쪽을 보면 팩트나 사실에 근거해서 지표를 가지고 보면 2025년 대관 결정 현황에 연극, 무용, 뮤지컬이 쪽 나와 있는데요. 연극보다 사실 무용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무용 분야는 아르코댄스 컬렉션도 있고 댄스필름도 있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그래서 사실 무용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이것은 제가 장르 이기주의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는 하지만 공정하게 순수 무용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대관 결정에서 무용이 압도적인 이유가 신청건수 비율로 선정돼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용은 전체 대관 일수가 최대로 길면 1개 단체가 6일입니다. 보통 5일에서 6일 정도의 제작기간을 거쳐서 공연까지 3회 정도를 진행하니까 당연히 무용의 작품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연극은 최대 2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아무래도 셋업기간이 3~4일 정도 진행이 되고 연극은 10회에서 12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극단체가 실제로 선정된 건수로는 적지만 일수로 계산하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일수로 보면 연극이 28건 중에 322일 정도를 대관 배정받아서 공연하게 되고요. 무용 같은 경우에는 53건이 결정돼서 약 289일 정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예. 그리고 101쪽에 보면 향후 아르코 예술극장을 미래형 공공극장으로 외연을 확장한다고 내걸었는데요. 이걸 이슈화해서 담론을 가져가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과 부정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래형 공공극장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담론으로 내용적 미래형이 있을 것이고 공간적 형식의 측면에서의 미

래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110쪽을 보면 기후위기라고 해서 이것을 특화해서 다룬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사실 창작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후위기라고 공공극장에서 담론화했을 때 자칫 예술가들의 사유나 창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쪽으로 견인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담심의를 하면서 올해 2025년 지원심의회에 있어서 창작주체,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청년예술도약지원. 일부에서는 제가 ‘독점한다.’, 제가 전부 다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대별, 장르별, 지역별 창작 경향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창작 경향이 이것은 기후위기, 지구촌의 황폐화 이런 부분이 작품으로 주제로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대적 공연미학적 구현에서도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공극장에서 창작의 자율성을 획일화할 수 있겠다, 물론 선택 집중해서 기후위기라는 담론을 가져가지만 창작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저해한다면 이것은 창작의 위기다, 역설적으로 그런 해석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 위원회의 의무를 보면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코예술극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비효율적으로도 보면 거의 무용 중심 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용의 비중이 많고 대관도 그렇고 문예위 예술극장에서 기획하는 것도 무용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의 대관 심의 절차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불공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서 제가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이 따로 저한테 보고 내지는 논의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지금 마지막에 주신 말씀, 결정사항과 심의 진행된 과정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성기숙 위원 : 나머지 기후위기나 미래형 공공극장으로 가겠다는 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다루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 다시 논의를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미래형 공공극장에 대한 방향성에서 외연과 내용적인 부분을 구분하셨는데요. 사실 극장의 기능적 외연에 대해서는 극장 예산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 자체가 오래된 극장이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LED조명 등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기자재 중심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있다면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적 확장성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극장의 기능적 고도화를 이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아르코예술극장이 80년대 초반에 건립이 되었고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서 리뉴얼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뉴얼을 하면서 건축의 외형, 실내에 최적화된 극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 담론적 설계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극장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실시 설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것이 극장운영팀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쭙볼게요. 101쪽에 핵심 운영 방안

이 확정된 건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이것은 작년에 발표된 기관의 비전입니다.

김진각 위원 : 굉장한 고민한 흔적들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공공극장이라고 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대관 운영 등 이런 쪽에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관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관을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관객이 없는 그런 공연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술위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고 지원에 대한 부분, 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만 너무 집중되어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극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관객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함께 여기에 녹아들어 가야만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하드웨어 측면과 대관 등 단순한 업무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 방안에서 관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대관을 했거나 공연을 했을 경우에 관객 점유율 등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극장운영팀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관객들을 꼭 빼놓고 단체지원, 개인지원, 장르별 지원을 아무리 해 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그렇고요. 우리나라 예술위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미국연방예술진흥기금 NEA가 거의 리셔플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권의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만큼 보는 관점 그리고 문화예술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만 그동안의 운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사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예술로소풍이라든가 필름영화제 같은 것들이 조금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극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기획 의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관련된 질문이라서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로소풍에서 보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개선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질문에 솔루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관객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 성과목표치를 여기에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야외라서 카운트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1일 관람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량적 목표치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달성했는지? 달성 성과 수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예. 타겟층을 방송 미디어를 활용한 테마형 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타겟층을 방송미디어로 활용한 테마형 홍보 추진이 어떤 것인지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안으로 있어서 여기에 서술해 놓으셨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당연히 홈페이지도 있고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미디어 쪽 그러니까 방송사나 주요 언론사 쪽에서 예술로소풍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작년부터 언론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들지가 않습니다.

홍성태 위원 : 우리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그냥 막연히 되는 것보다도 공간 운영, 콘텐츠 강화 등을 얘기하셨는데요. 홍보의 문제에서도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객접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도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안내 메뉴얼을 개선하겠다.”, “홍보를 강화하겠다.” 라는 것보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티켓 안내원, 관객 안내원들이 점점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숙련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년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매뉴얼도 개발하고 있고 교육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들어오시는 안내원들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관객 안내원들이 하우스매니저협회에서 주 강사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잠시만요. 저희도 소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성적으로 쪽 해서 좋은 효과를 얘기하시는데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프로그램마다 기대효과가 있을 겁니다. 공모를 할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나오는 다른 사업을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을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게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정책적으로 아마 경영평가 상으로 꼭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과연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홍 위원님도 그렇고 김진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내용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기대효과를 했다고 하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숙련된 홍보요원이 얘기했다는 건 칭찬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량적으로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거든요. 그분이 역할을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SNS에 조회수가 얼마가 나왔는지? 아니면 얼마나 네트워크가 되었는지는 정량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2024년도 극장운영팀 종합 운영실적 보고서를 참조로 드리면 괜찮으실까요? 정량적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라서 외부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팀장님이 말씀하신 문예위에서 생산되는 자료집이든 통계집이든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다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사업, 전체적인 직무 활동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예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집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보니까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설정된 아젠다가 아니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저희 극장은 사실 ESG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경영전략 안에 넣기 전부터 극장장님이 오셔서 재난 이후 예술가들과 극장이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후에 “또 다시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래서 극장의 기능들이 어떻게 확대되고 예술가들과 어떻게 같이 창작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러니까 재난과 기후위기는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인데요. 기후위기는 보통 문화 정책에 아젠다로 집어넣는 것을 유럽이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 없이 따라한 것인지?

그것은 문체부에도 나와요. 이런 기후위기 문제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원칙이 있어서 넣은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개방형 공모직을 통해서 선정되실 때 극장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창작역량 등이 제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면 몇 년 동안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공극장인데 장소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시민이라고 하면 서울시민이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서울문화재단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로소풍이라고 하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만 아십니까?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주 고객은 그렇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성기숙 위원 : 짧게 말씀드리면 III쪽을 보면 기후위기에 관련된 유관 사업 프로그램을 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도 끝나고 나서 “무용계가 창작을 통해서 지구를 구원하겠다.” 라는 농담 아닌 농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이라는 것에 액션을 했을 때는 가치 확산이 긍정과 부정이 같이 공존하는데 “기후위기를 소재로 하면 선정되는데 유리하더라.” 이게 유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것은 이런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특히 문예위는 기초예술의 창작 활성화, 창작의 자율성, 사유를 열어두는 무궁무진한 창작의 상상과 날개를 퍼는데 우리가 조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비엔나에 갔더니 NQ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기후위기에 부응한다고 다 걸어내더라고요.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의회 차원에서 하라고 밀어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냐?” 라고 우리가 거꾸로 질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경향을 너무나 쉽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자료 등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배은주 위원 퇴장)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다음은 제1117호 무대예술전문교육 기본계획(안)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께서 보고해 주시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2025년 무대예술전문교육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무대예술전문교육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입니다.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2년부터 무대예술연수회관으로 개관한 일산에 있는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주로 운영되는 무대기술 종사자 대상의 무대예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예술기술융합 창의인재교육인 APE CAMP입니다.

올해 4회째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아티스트, 프로듀서, 엔지니어 100명이 모여서 예술기술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대기술인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단원 사업과 함께 이미 의결해 주신 내용인데요. 예산이 무대예술전문교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언급하는 차원에서 삼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르코예술행정아카데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가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면 네 번째 예술행정아카데미는 문화, 예술, 행정 분야의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 내 일’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내 일’이라는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64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입니다.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3)번 사업개요의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730명 가량의 무대기술 종사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종사자 역량 강화 과정과 무대기술 기초 크루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종사자 역량 강화 과정에 벽제 인력개발원에서 그리고 예술가의 집에서 그리고 위원회의 여러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크루 과정에 지역의 공연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APE CAM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회째 이루어지게 되고요. 작년부터 국내, 해외 오픈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에 2박 3일간 운영이 되게 되고요. 이미 해외 참가자는 35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국제컨퍼런스와 2박 3일 캠프로 행사가 계획되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대기술인턴지원 사업은 연수단원과 함께 선발이 다 끝났고 예산은 12억 2,600만 원이고요. 총 60명이 다 선발되어서 교부 단계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아르코예술행정아카데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기획, 경영, 행정) 분야에 있는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

고요. 연간 200명 가량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역 중견 리더과정이라고 해서 지역 공연장의 예산을 결정하는 지역 공무원들 대상으로 신규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서 올해부터 연간 1,200명가량 교육을 신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 내 일’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말씀드렸듯이 총 64개의 강의가 운영되고 있고요. 월 1,000명 정도가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신규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지금 무대예술전문교육 예산 안에서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공간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있는 창조관과 무대미술스튜디오, 실험무대. 이게 교육을 위한 극장 운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까지 해서 총 대지 2,378평, 건물 1,47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제 공간에는 예술인재양성팀과 용역직원들로 해서 총 11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25개 과정으로 연간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실험무대와 무대미술스튜디오는 작화나 공연의 트리아아웃 같은 용도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예술 실습을 위해서만 실험무대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유일한 교육장소로 정평이 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력개발원의 연간 소요예산은 5억 5,200만 원입니다.

간략하게 2025년 무대예술전문교육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무대예술아카데미를 보니까 1992년부터 추진해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오래되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마도 픽스가 되지 않고 매년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무대예술아카데미?

구문모 위원 : 예.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커리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문모 위원 : 예, 커리큘럼이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커리큘럼은 커리큘럼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구문모 위원 : 잠깐만요. 말이 길어지니까 질문이 다 끝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두 번째는 APE CAMP인데요. APE CAMP도 2022년인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동영상도 나와 있어서 살펴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박 3일 동안, 준비기간은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2박 3일이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네트워크’ 라고 되어 있는데요. 2박 3일 동안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대효과가 뭐냐하면, 네트워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후속적으로 계속 이어질까?”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정량으로 나와야 되고 정성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도출 과정은 12명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조명 분야, 음향 분야 그리고 무대 분야에서 4명씩 커리큘럼기획단을 매년 새롭게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커리큘럼을 매년.

구문모 위원 :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콘텐츠진흥원의 프로그램들을 쪽 관리도 하고 평가도 했었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공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하면 민간 학원들이 죽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하나씩 지우고 민간이 안 하지만 빨리 우리가 따라잡아야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 질문의 핵심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캐치했구요. 그런데 공연장 관련한, 기술 관련한 학원은 다행히도 없어서요. 저희가 교육하는 기관으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아직까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조명가협회에서 가끔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겹치지 않게 사전에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사실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민간이 안 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안 맞거든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민간에서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적어서 안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의견 내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주요 진행 연혁을 적어놓으셨는데요. 공연예술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이 2007년에서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관계에서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공연예술아카데미가 1990년 덕수궁 석조전에서 시작되었구요. 제가 공연예술아카데미 1기 출신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공연예술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인데 문화예술위원회 50년 역사 기록집 책자에도 누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분야는 아주 전문적인 스킬을 요하는 것이라서 민간 학원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운 고도의 전문 분야고요. 민간 학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앙대나 동국대, 한양대 등 연극영화과가 있는 대학 그다음에 한예종까지 대학에서 무대장비부터 특화된 교육을 4년 동안 엘리트 중심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90년대 초반에 무대예술아카데미가 실효성이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트 교육기관이 전문적으로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아르코에서 하는 무대예술전문교육으로 내세울 수 있는 특·장점,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아무래도 현장에 진입하기 이전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교육은 숙련된 인력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재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한번 자격증을 딴 인력이고요. 자격증을 딴 인력이 어디에 가서 자격증 보수라든가 자격 숙련 교육을 받을 곳이 없는데요. 현장에서는 계속 기술이 변화하는 기술 대응에 대해서 교육 받을 곳이 없는데 아르코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은 모집률이 항상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에 대한 고민이 없는 유일한 교육입니다.

성기숙 위원 : 아르코의 전문 공연인력, 예를 들어서 조명하면 이상봉, 최형오, 신호 등이 선도적으로 무용이나 연극에서 조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데요. 이런 분들의 브랜드 가치가 아마도 아르코의 공연예술아카데미의 명성을 견인하고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공공극장, 전문극장이 많기 때문에 유일하다면 차별화가 있어야 해서 교육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승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아까 구문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APE CAMP 관련한 내용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구문모 위원 : 그것은 따로 해 주세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 말씀하시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APE CAMP 관련한 후속지원은 너무 고민하고 있는 문체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 상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APE CAMP 대상 그룹들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예술가의 집 라운지에서 60~7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60~70명이 모여서 본인들 작업에 대해서 후속 논의를 하고 연계지원하고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전시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룹들이 저희 지원사업에 지원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인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유료입니다.

왕치선 위원 : 그러면 수업별로 내시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수업별로 내고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왕우리 팀장한테 여쭙볼 것은 별로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제가 서면으로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구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대학도 많고 학원도 많은데 초기에 없었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의 수업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은 감히 못 드렸는데요. 실은 제가 아까 공연예술팀의 사업들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술위원회가 이것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있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항상 오면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아는 부분의 레벨이 너무 안 되니까 실수할까봐 못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과거에 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찌다 생긴 것도 있을 텐데요. 문화일반 위원님들께서 예술위원회의 지향하는 가치에 과연 이 사업이 맞는가? 시대에 맞춰서 해체를 해야 하는 것은 없나를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하고 찾아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우리 스스로가 학습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석조전 시절의 프로그램은, 물론 크게 보면 예술종합학교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생기면서 변혁이 있었지요. 무대기술에 특화되어 말씀드리면 청운대, 백석대 등이 있고 예종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술위는 재교육에,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무대 음향, 무대 조명에 대한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보수 교육 차원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명가협회, 무대협회가 있는데 그쪽은 자기들의 시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스스로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구문모 위원 : 유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소위에서도 비전을 세웠잖아요. 비전과 합이 맞아야 경영평가가 나올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비전이 딱 나오면 그것을 받고 “이것을 왜 하고 있냐?”, “왜 바꾸지 않았냐?”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아르코의 질적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공공 공연장에서 하는 분들의 재교육 시스템이니까 기계가 선진화되면 그것을 다루는..... 조명도 그렇더라고요. 컴퓨터화가 되었고 옛날에는 수동으로 했다가요. 이런 것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유용하다고는 보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특징점을 강화할 내용과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협회에서는 이거죠. 라이선스 개념으로 약간의 수익적 측면에서 도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런 데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예위에서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질을 높이는 이것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아주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아르코예술행정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커리큘럼이나 강사 선정에 대한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강사 선정의 원칙이요? 예술행정아카데미 말씀이잖아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일단은 커리큘럼에 대한 선정은 100%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자 조사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커리큘럼에 가장 최적화된 강사를 서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먼저 도출하고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 사무처에서 하는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이 변했고 해당 커리큘럼에 대한 강사들은 어떤 분들로 들어갔는지에 대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잠깐만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더 커져서요. 모집 인원도 항상 초과된다고 하시고 전문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의문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문화예술교육 통합 플랫폼으로 ‘문화예술, 내 일’을 보면 아르코문화예술 전문가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선정되어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무대감독 역할의 이해’ 그래서 2일 동안 6만 원입니다. “이것을 전문가 코스라고 할 수 있을까?”, “6만 원을 내고 2일 동안 들을까?”, ‘국내외 아레나 공연장의 특징 및 사례’ 하루 2시간에 15,000원인데 이것을 전문가 코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집이 잘 되나요?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희가 올해 무대예술전문교육 커리큘럼을, 가격이 문제이신건가요? 어떤 게 문제이신걸까요?

장미진 위원 : 제목이 그렇네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무대감독이 전문직 아십니까? 무대감독을 희망하고 무대감독 입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고 일반인들은 듣지 못하는 강의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무대기술 파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온라인 강의를 아닙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보고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와서 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성을 기했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무대감독의 역할은 연수교육입니다. 1박 2일짜리고요. 저희가 비용은 노쇼를 위해서 책정한 금액이지 다시 부여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외주를 주시는 거죠? 직접 하시는 건 아니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외주가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왔을 때 케이터링이나 셔틀버스 등 수강생 관리를 외주가 하고요. 커리큘럼 개발이나 강사 섭외, 임금 지급은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전문가 코스라고 되어 있으면 네이밍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 냄새가 폴폴 난다.”, “이것은 정말 전문가들만 듣는다.” 그 정도로 문구를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대감독의 이해’라고 하는데 무대감독이 전문직이죠. 전문직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전문가 코스로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게 네이밍이라도 조금 더, 커리큘럼의 내용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이해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정리하셨죠? 요청하는 자료 등을 보완하시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원안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감영 위원장 대행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18호 2025년 아르코 글로벌 예술창작실 운영계획(안)입니다. 최혜주 미술관 운영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아르코 글로벌 예술창작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앞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3페이지 붙임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이 안건 이후에 보고드릴 아르코미술관 연간 운영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미술관이 다양한 시각예술 현장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로 기능하면서 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이라든가 현장의 예술가들을 연결해 주고 그들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아르코미술관의 국제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내외 시각예술 작가들의 교류와 기획자들의 교류, 이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K-아트 확산을 위한 전략모색의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시각예술 국제 플랫폼으로 창작공간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교류협력팀에서는 다양한 작가들이 해외로 초청을 받아서 나가는 레지던시 사업들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레지던시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구요. 사업설계 단계, 답사 단계 그리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각예술 위원님과도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현장답사를 여러 군데 진행해서 입지조건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공 내역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검토했구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평창동에 있는 작업실로 5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뜰리에 공간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국내의 작가 10명 정도를 공모를 진행해서 입주를 하고 각 기수별로 상반기에 5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 5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평창동 아뜰리에에서 진행을 하고 기간은 1차 기수를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2차 기수를 9월에서 1월까지 5개월 정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들은 작가들이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는 작업실을 운영하고요. 이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와 국내외 미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인 9월에 굉장히 큰 아트페어들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연결해서 이 작가들을 아트페어에서 소개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미술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미술관의 전시장에서 이들의 보고전까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체계는 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하되 아뜰리에 후원을 일부 받고 그 아뜰리에 쪽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별도의 레지던시로 운영하고 있는 자문밖문화포럼이라는 전문단체와 협력을 같이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국내외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진 작가, 젊은 작가, 40세 미만의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픈콜로 진행을 하되 국내외의 각 레지던시나 이후 이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마치고 나면 국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나 레지던시, 아트페어 관계자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를 보시면 작가지원 규모의 경우 창작공간, 숙박 그리고 해외작가의 경우 항공료 그리고 작품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소에 대해서는 166페이지에 사진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 공간을 조성해서 작가들이 입주하고 상반기 1기 작가가 입주하고 하반기에는 2기 작가가 입주하고요. 대신에 9월에 이루어지는 아트페어에서는 1기, 2기 작가들 모두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아트페어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이후 11월부터는 아르코미술관에서 전체 성과보고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들은 166페이지에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 세미나, 멘토링, 오픈 스튜디오, 아트페

어, 성과보고전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의 추진일정은 일단 오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이 되면 작가 공모를 진행해서 입주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요. 여기 아르코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미술축제 내에서 아트페어와 연계하고 저희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도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전시를 미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안은 3억 원으로 잡혀 있고요. 이 예산이 사실은 작년도에 예술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미술작가들이 참여해서 그 작가들이 작품을 기증하시고 작품경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마련된 후원금과 이번에 시각예술 창작산실의 공간지원에서 잔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간을 매개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혹시 제 설명이 미흡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위원장님 검토 지시가 경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배경이 뭔지?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지시한다고 하면 현재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논리는 어떤 것을 했지만 조금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대충 있는데 그것인지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64쪽에 보면 자문결과 서울 중심의 창작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중복될 것을 염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166쪽을 보면 주요 프로그램이 쪽 나와 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설계될 때 각 프로그램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고 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세미나, 멘토링, 오픈 스튜디오, 네트워킹, 아트페어 참여, 성과보고전은 늘 나오는 메뉴잖아요.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혜주 아르코미술관 운영팀장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추진배경 중에서는 모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예술위원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니즈를 충족하고, 특히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K-아트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베니스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도, 이럴 경우 미술관이 그런 시각예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이 거점 역할로 전문화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 부분이 미술관으로 이관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작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레지던시들은 지원사업으로 교류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 예술가들이 한국에 대한 K-문화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내외 작가와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르코의 역할이라는 것이 위원장님의 판단이셨고요. 아르코미술관에서도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해외의 다양한 미술관이나 주체들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국내의 인바운드레지던시 같은 경우가, 아까 서울시 말씀도 하셨지만 국공립미술관에서도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신진작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부분보다는 네임드 작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아트페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가들이 레지던시를 하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체류를 하고 오픈 스튜디오까지만 하고, 예산이 있는 경우나 미술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성과보고전을 짧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탈피해서 뒤의 미술관 연간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벌써 3년째 추진을 하게 되는 아르코데이라는 대한민국미술축제와 프리즈 서울, 그 다음에 화랑협회에서 주최하는 키아프 아트페어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 아트페어에서 작가들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해외의 그리고 국내의 유력한 미술컬렉

터라든지 큐레이터나 기획자가 많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구문모 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트페어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할 때 그림을 그리고 하셨느냐는 것이고요. 각 기대효과를 관찰하셨느냐고 시너지 목표를 세웠느냐는 차원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쓸 때도 뒤에 내용만 있지 기대효과가 없잖아요. 기대효과를 훌륭하게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은 훌륭하게 설명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객관화가 안 됩니다.

왕치선 위원 : 실은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던진 것이지 내가 말을 하면 무조건 실행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뭔가를 던질 때 어디에선가 접점이 있었고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가 옳고 훌륭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보라는 뜻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대기업이네.”, “문어발 확장이야.” 모든 것을 하고 거기에서 또 뭐가 생겨나서 우리 예술위원회의 나이만큼 프로그램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직원들께서는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하던 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시잖아요. 저희가 위원이라고 하지만 외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3자로서 조금 더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일에 빠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챗바퀴 돌아가듯이 일에 치여서 살게 되고요. 어떤 것이 합당하고 우리 기관의 본질에 맞느냐를 정말 쿨 다운해서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 사업도 실은 위원장님이 “해 보면 좋겠다.” 라고 던지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계속해서 제시해 주신 것들이 우리가 “빨리 의결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가야 돼.”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고생은 직원들이 하시고 잘되든 못 되든 저희가 여기에 사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사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것들이 알지도 못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사인을 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속기록도 못 읽었거든요. 하라고 하니깐 했어요. 결국은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해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러다가 정말 저도 3년 있다가 나갈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건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다 좋아요. 미술분야 위원님이 하라고 하면 해요. 그리고 실험 삼아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우선 저는 위원회가 왕치선 선생님처럼 사무처에서 고생하시고 사업설계를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발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십분 알고 있고요. 전담심의에 참여해 보니까 정말 위원회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경쟁하듯이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르고 글로벌 예술창작실 운영계획을 시범으로 올해 한번 해 보겠다는 구상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네이밍 문제입니다, 명칭과 관련해서요. ‘아르고 글로벌 예술창작실’ 이라고 하면 ‘글로벌’을 빼고 ‘실’을 빼면 공연예술 쪽이 하고 있는 ‘창작주체’, ‘창작산실’과 용어상 아주 비슷합니다. 용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상징, 표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용어에 대한 네이밍 문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미술 분야만 필요한가? 우리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해외 작가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레지던시를 하고 기대효과는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술 장르만 레지던시가 필요한가?” 이게 설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방식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공간 확정’ 공간은 ‘평창동 아뜰리에’에서 하

겠다고 확정이 되었고요. 후보 단체는 ‘자문박문화포럼’으로 되어 있는데 아르코미술관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아웃소싱이잖아요. 이런 “아웃소싱을 하는 게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주관 단체의 지정근거를 명시해 놓았는데요. 보조금운영관리규정 제2장 제9조 보조사업자 공모에서 제1번 ‘위원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마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아웃소싱하는 단체를 선정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3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정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권한을 굉장히 확대해 놓은 조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의 특성이 과연 보편적이고 통상적이지 이게 특화돼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위원장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좀 약하고요. 지원대상도 국내 작가 6명, 국외 작가 6명이고, 운영프로그램은 어디나 할 수 있고 아주 평이합니다. 문화탐방은 어디나 하잖아요. 그다음에 세미나, 멘토링, 오픈 스튜디오, 네트워킹은 어디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표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문화예술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문박문화포럼’의 경우 선정기준을 보면 ‘비영리단체, 창작공간 운영 역량 보유, 지역 인프라 활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때 서울, 경기, 수도권권을 제외한 정말 문화적인 게 척박한 이런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자문박포럼’은 아주 서울에서도 굉장히 부촌, 굉장히 우량하고, 우량한 지역이 평창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특히 미술 분야만 한다고 했을 때는 특혜라는 의문의 여지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미라 위원 :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아니기는 한데요. 이 사업에 대한 처음 고민부터 제가 여러 차례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레지던시 사업에 대해서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실무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각 미술관에서 했던 레지던시 사업에 심의 운영 평가를 여러 번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르코 교류협력팀에서 해외로 작가를 보내주는 레지던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네트워킹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큼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아르코에 얼마나 이 공모사업이 효과를 주는가는 다소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네트워킹으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다른 전시에 참여하거나 어떤 큐레이터와 인맥을 형성하고 그것이 또 향후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지던시 사업이 힘을 가지려면 물리적인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외 레지던시 교류사업을 쪽 해왔던 아르코가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레지던시를 직접해 보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굉장히 보편·타당하다고 하지만 보편·타당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아르코 사업에서의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짧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가져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네트워킹을 하지 않고 국내에 계신 작가들이나 기획자들과 해외의 작가들이 들어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국내에 있는 좋은 작가들과의 네트워킹도 되게 빠른 시일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레지던시의 좋은 작가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바란 것은 사실 이 시범사업이 짧은 시일에 자리를 잡아서 작가레지던시뿐만 아니라,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예술만이 아니라 장르도 넓히고 이게 작가뿐만 아니라 기획자레지던시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려면 올해 이 시범사업이 말씀하

신 것처럼 추상적인 기대효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게 설계를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봤습니다.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은 아마 아르코에서 답변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런데 몇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까 질문했던 것 가운데 “왜 평창동이나?” 그런 물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미라 위원 :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여러 군데를 보신 걸로 아는데요. 일단 해외의 작가들이 오면 교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오지로 가게 되면 일단은 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교통의 편의성을.

성기숙 위원 : 교통이 오지일수록 창조의 영감은 더 극대화 되는 것 아닙니까?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비엔날레가 열리는 광주도 있고 간송이 있는 대구도 있는데요.

김진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급조된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검토지시가 내려왔고 추진한 게 몇 개월이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예산적인 문제인데 이 사업의 주된 예산이 후원금. 그러니까 작년에 예술위원회에서 했던 행사의 후원금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나?” 그래서 아마 고민 끝에 이런 것을 하기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급조되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의 작가들이 온다고 하면 사실 외국의 작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외의 유명 작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네임 벨류가 있는, 아니면 이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작가들 중심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작가들이 우리나라 작가들과 교류 등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일회성 행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후원금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건가요? 예산이 없는데 올해 한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전시성 행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 장르로 확대가 되려면 예산적인 측면과 사업의 목적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사업의 정확한 목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치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되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고 ‘문화탐방’, ‘아트페어 견학’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미지 않으면 이것은 올해 한번 하고 말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라 위원 :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니까 굉장히 좋다.” 라는 결과치가 나와야지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년 공모사업에 정식적으로 확정되고 장르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국내의 지원사업에서 허브 공간을 가지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 그 효과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아르코에서 하니까 아르코에 특화된 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컨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ACC문화중심도시도 있고요. 기업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현대갤러리 등 이렇게 수많은, 미술은 순수예술이라고 해도 공연예술 분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산업화, 수익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르코에서 다른 데와 유사성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약하고요.

김미라 위원 : 조금 다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다음에 선정방식을 지금 설계안대로 가는 것은 상당히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치선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김미라 위원께서 처음부터 발의하셔서 진행하신 건 아니죠?

김미라 위원 : 발의는 아니고요.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왕치선 위원 : 그래도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참여라도 하셔서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음악 쪽 같은 경우 아르코양상블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것을 듣지도 못 했고 밖에서 “그런 게 있는데 뭐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회의 아시는 분께 여쭙봤더니 위원장님이 임의로 만드신 거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구구절절 얘기하기는 창피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파악돼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메일로 저희 위원회 회의안으로 들어와서 이번 것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뉴욕에서 하고 LA에서도 한답니다. 작년에 유럽 갔다가 온 돈이 예술 나무기금 3,000만 원을 쓴 건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의결을 못 했나?” 했더니 어찌어찌 늘어서 1억 원이 되었어요. 현지 유학생들을 모아서 양상블 하는데 1억이 왜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것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토론회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가 위원이면 그런 것을 하는 걸 알거나 의결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내가 몰랐다?” 라는 궁금증을 가졌지만 다음 진행부터는 뭘지 모르겠어요. 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위원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진행이 되었어도 밖에 나가면 장르별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난도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조금 더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관심은 관심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YES”만 하고 다갈 수는 없잖아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장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킨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왕치선 위원 : 이 안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 이 건을 가지고 거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진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급조된 느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정된,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오해를 줄 여지가 있고요. 통상하는 국제교류 영역에서는 숙식을 제공한다면 항공료는 이쪽이 부담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체가 없다는 거죠. 다 우리가 해외의 누구를 선정해 놓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라서 교류도 아니고 좋게 말해서 외연을 확장한다는 식의 개념이라서요. 그 자체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의의가 있고 잘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들 너무 평범하고 특수성이 없고 급조된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이 건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미술관운영팀장께서 사무처에서 논의하고요. 위원장님 언제 오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3월 2일에 오십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러면 곧 오시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안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3월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요.

성기숙 위원 :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위원장님은 오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위원회 의결 절차를 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 후보단체가 선정될 수 있을까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러니까 안으로요. 일단 안으로 넣은 거니까요.

성기숙 위원 : 선정이 된 것인가요?

최혜주 아르코미술관 운영팀장 : 선정이 되지 않고 오늘 의결을 해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선정하지 않았습시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안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보조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원장님의 판단이 있으면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이니까요.

송시경 사무처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목적에 의한 예산이라서 남았을 때는 창작활동에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는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안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아까 왕치선 선생님의 오케스트라 건은?

왕치선 위원 : 그 건은 의결이 된 적이 없지 않나요? 오케스트라 건은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이미 의결이 되었나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의결안건으로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시다.

왕치선 위원 : 그러니까요. 의결안건이 아닌데도.

김미라 위원 :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위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다음 달에 의결안건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경우 시범사업의 전체적 일정에 문제가 없으신지? 사실 지금 비영리단체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그쪽으로부터 실무진들은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단체와 협의를 해서 후원의 절차까지도 끌어낸 지점이 있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임 관장님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평창동에 여러 예술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못 했지만 시너지도 굉장히 날거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괜찮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괜찮고 안 괜찮고가 아니라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괜찮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보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 오시면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최혜주 아르코미술관 운영팀장 : 지금 해외 작가들의 체류 기간을 4개월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4월에 입주할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되거든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일정을 이유로 위원들에 대한 압박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1월 회의 때 올려도 되고 12월에 올려도 될 것어요.

최혜주 아르코미술관 운영팀장 :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급조된 것 같다는 부분과 특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조된 부분은 미술관이 이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작년 10월이지만 위원장님이 취임하고부터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회 차원에서 아웃바운드도 중요하지만 해외작가들이 K-아트의 위상이 높아졌고 K-아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 그 얘기는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제기에 대해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여 분 간 논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기숙 위원 : 222쪽이 되는 회의자료를 제가 2번 봤거든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전혀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은 분명히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관련해서 매년 출장도 많이 갔다가 오시고 위원님들도 갔다가 오셨는데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보고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위원회의 위원들의 직무, 역할, 권한, 책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베니스비엔날레도 그렇고 시각예술 분야 글로벌 예술창작실에 집중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부터도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특정 장르에 위원장님의 의사결정 권한이 너무 힘 있게 개입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니스비엔날레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제 질문에 답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르코양상블은 사전에 위원회 안건으로 하지 않은 것이 맞고요. 창단 공연을 베니스의 한국문화원과 같이 하면서 시일이 촉박해서 사후 보고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의결이라든가 사전에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치선 위원 :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고지도 안 되었고 그냥 진행이 되었고 사후 보고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왕치선 위원 : 그러면 사후 보고 이후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참여했던 우리 회의에 그렇게 할 거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봤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내년에 뉴욕과 LA에서 하신다고.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지난번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서 유럽 이후 미국 쪽도 확장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유럽에서의 성과를 제가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신문에서 “이상하다.” 라고 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우리 담당자께서 성과를.

왕치선 위원 : 받았어요. 신문.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보완해서 성과와 계획 부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예산집행이 되었을 텐데 예산집행이 되려면 보고가 되고 단계별로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선 추진되고 예산집행이 다 끝났는데 후속으로 보고하고 의결절차를 하는 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규정과 절차위반 아닙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규정과 절차위반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김미라 위원 :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 안건은 글로벌 창작에 대한 것인데요. 아르코양상블까지 연결돼서 혼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치선 위원 :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미라 위원 :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있다가,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시각 쪽에서는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구축해서 보고를 드린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했는데요. 장르 위원과 열심히 해서 했는데 특정 장르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공정성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시고요. 어떤 부분을 더 어필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지금 5시 30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논의를 해 봐도 아까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의.

김미라 위원 : 어떤 문제제기를 하신 거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러니까 아까 제기를 하신 게 그것이죠. 효과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미라 위원 : 시범사업.

정갑영 위원장 대행 : 그것은 맞지만 최소한 계획안이라면 효과를 언급할 수 있죠.

구문모 위원 : 지금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냥 짧은 시간에 넘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오실 때 하자는 제안이거든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기하신 부분들이 단시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운영팀에서는 이것을 보완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악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자료를 주시든지 하고요. 이 안건 자체는 의결을 해야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고 거수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을 할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들을 보완한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뤄서 다음 달에 의결을 하자는 겁니다.

홍성태 위원 : 일단 보류를 하시죠. 세부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통역 및 번역에 500만 원인데 요즘 통역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영어로 대충해도 되고요. 대신 작품 제작은 건당 5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주고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왕치선 위원 : 실은 제가 오자마자 우리 위원이 심의·의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몇 달을, 한 가지를 가지고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를 가지고 엄청 교육을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가?”,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인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가?” 를 약간 과할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인지, 저는 몰랐어요, 심사를 한다는 게요. 그래서 공연예술팀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하라고 할 때 “우리 명단에 있는 것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를 늘 물어보거든요. 지금 그것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때 그 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이 사업이 그만큼 엄정하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르코양상을 관련해서 추진 과정과 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과정에 있어서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서 되었는지?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건 국제교류 관계인데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안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다음 안건은 제1119호 미술관 운영계획(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 역시 최혜주 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상 자리를 떠야 하고요. 홍성태 위원께서 해 주시죠.

홍성태 위원 : 아니요. 가시기 전에 5시 30분까지 끝내세요. 6시까지 끌어서 될 건가요.

성기숙 위원 : 오늘은 끝내고 이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혜주 아르코미술관 운영팀장 : 미술관 운영계획은 정말 시설운영 계획이라서 이것은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것은 보완을 해서 3월에 다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성기숙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붙여왔거든요.

정갑영 위원장 대행 : 미술관 사정이 딱한 것은 제가 알겠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혜주 아르코미술관 운영팀장 : 그러니까 앞의 글로벌 예술창작실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준비를 하겠고요. 미술관 운영계획(안)이 마지막 의결안건인데 혹시 이것을 미루면.

정갑영 위원장 대행 :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 건에 대한 보고잖아요. 그것은 그냥 여기에서 보고 해 주세요.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17시 28분 정갑영 위원장 대행, 장미진 위원 퇴장)

(17시 30분 홍성태 위원 퇴장)

5. 보 고 사 항



성기숙 위원 : 대대행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찾아봐야죠.

이훈경 위원 : 나머지는 서면 의결로 가능하신가요?

성기숙 위원 :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붙여왔잖아요. 위원회가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처에서 대행을 하시는 정갑영 위원장님의 시간도 확인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순 감사실장 : 지금 위원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감사기준에서 2월 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인데요. 자료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읽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2월 말까지 규정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이고요. 감사원에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건이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따로 궁금하신 점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의결사항은 위원님들의 정족수가 필요하지만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라도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보고는 정족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계획 같은 것은 관련 규정이나 법상 제출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영순 감사실장 : 보고를 따로 안 드려도 자료상으로 궁금한 게 없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작년도 실적과 다음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안 드려도요. 지금 213쪽부터 215쪽입니다. 통계나 자료로 분석을 해 냈는데요. 추진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2월 28일까지 보고를 이사회에 마쳐야 하

는 게 추진 근거고요. 작년에 진행했던 감사는 자체감사 11건, 종합 1건, 특정 6건, 복무 4건이고 총 처분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아래 표로 보시면 되고요. 한국문화진흥(주) 뉴서울 골프장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고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함께 해서 작년에 종합감사가 대대적으로 들어갔던 건이 있었습니다. 아래 특정감사 건은 자체적인 운영 실태나 기획사업들 그 다음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30주년 특별전 추진 등의 점검이 있었고요. 일상적인 공공요금이나 공용차량운영, 복무관리 등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문체부 건이 궁금한 것은 계속 논의가 되었으니까 국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남북관련 사업이 2023년에 감사가 되다가 2024년으로 이월이 돼서 처분이 나왔고요. 자체감사 건들이 2023년에 비해서 좀 많아진 것은 말씀드렸듯이 한국문화진흥에 대해 국조실에서 복무관리를 보고, 저희 쪽에서도 복무관리를 2023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는 일상적인 것들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표에 정확한 통계들을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맨 하단의 (4)번 회계감사는 올해 새로 선임된 신한회계법인에서 절차대로 잘 진행해서 감사의견 ‘적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215쪽 연간 감사활동 계획은 연간감사에 보면 바로 밑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종합감사, 성과감사 3건, 특정감사 7건, 복무감사 2건으로 했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종합감사는 조직의 종합적인 것을 조명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방향이고 특정감사는 특정 현안이라든지 이슈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요. 복무는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건의 계획을 세웠다가 11건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일정 또는 인력 투입 인원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12건으로 조정했고요. 감사 사안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했고 사업에서 특히 살펴야 하는 것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보고안건이라 별도의 의결 절차가 아니라서요. 보고를 받은 걸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체 감사도 있을 것이고 외부 감사 요청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시 감사도 있을 텐데요. 감사실의 전문인력, 감사 전문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영순 감사실장 : 상임감사님 포함 8명이고요. 저희는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80시간 이상 연간 개인당 100시간 넘는 시간을 전문 감사원이라든지 교육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 실적이고 감사원 평가 대상이기도 합니다. 감사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술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성과 B를 받았고 올해는 6월쯤에 성과가 나올 텐데요. 기량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성과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감사 절차 매뉴얼이 있나요?

정영순 감사실장 : 그것은 감사원에서 나오는 절차대로 따르고 있죠.

성기숙 위원 : 절차를 따로 1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영순 감사실장 : 규정안에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감사 결과 이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정영순 감사실장 : 그것은 저희 알리오 시스템이라든지 문체부, 감사원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를 다 공유하고 있고요. 처분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전부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기숙 위원 : 정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 판단은 안 섭니다만, 위원회의 구조가 위원과 사무처, 노조 등 크게 보면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직위는 사측에 속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비상임위원은 임원이시고 사용자 측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사용자 측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직무라든가 보호라든가 처리방식에 있어서 사무처에서 해주어야 되는 게 있죠? 보장 내지는 조력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파트너는, 물론 비상임위원님은 저희 위원회의 직원도 아니고 당연히 노동자도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사측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만, 노동조합의 파트너는 사측의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는 위원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상의 파트너는 위원장님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저희 비상임위원들은 동등한 수평적 관계고 위원장님은 위원회에서 호선되었기 때문에 위원장과 동일하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위원회 회의라든가 위원회 표결 부분에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위원회의 한 분이기도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직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의 대표권을 가지고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대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노사협상의 파트너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기숙 위원 : 시간이 지체되니까 관련해서 나중에 문건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그 사이에 제가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어쨌든 회의는 진행되고 있고 연장자순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구문모 위원님이 현재로서는 연장자이신데요. 제 해석에 따르면 어쨌든 의결안건은 글로벌 창작실 운영계획과 미술관 2025년도 운영계획(안)은 유보를 시켜놨으니까 정리가 되었구요. 의결안건은 아니지만 회의의 형식을 따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접수 형태로 하면서 마지막 폐회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서요. 형식의 미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보고 부분은 의결안건하고는 달라서 첫 번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보고가 끝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번의 전체회의 속기록 절차 개선(안)만 다루고요. 일정만 정하고 폐회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의견을 주시면 사무처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좋고 메일도 좋고요.

성기숙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 보고안건도 굉장히 중대 사안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에 좀 유감스러운 것이 중요한 회의인데 예측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들을 소집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대대행’ 까지 갈 정도로 진행하는 것은 파행처럼 비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요.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죄송하고요. 우리 사무처에서도 예

를 들어 안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을.

김진각 위원 : 나머지 보고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3월 회의 때 하게 되나요?

송시경 사무처장 : 지금 그 부분은 의견만 주시면, 보고사항이니까요.

성기숙 위원 : 3월 회의로 이월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지금 사회자는 아닙니다만 정리를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아까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이월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송시경 사무처장 :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다만, 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공개는 너무 간단하다고 하니까 좀 들어봐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사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성기숙 위원 : 저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속기록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원만하게 오지 않아서 이것도 다음 회의로 이월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간 감사계획처럼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계획(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자산운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의결안건으로 가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완전 위탁형으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기재부로부터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쨌든 저희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최고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다음으로 이월하시는 게 좋겠고요. 누군가는 의사봉을 쳐야 하니까 대대대행께서.

구문모 위원 : 시급한 사안이나 아니냐는 거잖아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월 위원회 때 의결을 받은 것처럼 저희가 기재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 기금운용을 기재부 투자 풀로 완전히 위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 풀에서 가이드라인이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고만 드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구문모 위원 : 지난번에.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12월은 대면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구문모 위원 : 지난번에 나주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한 것이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예.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페이지는 21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의 의사결정 최고

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지만.

성기숙 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 대행이 나와서 하셔야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유고로 인해서 연장자이신 구문모 위원님께서 위원장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이것이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지난번에 내용에서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해 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관이 완전 위탁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문예기금의 자산운용계획을 완전 위탁 주관사인 미래에셋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기재부 안에 있는 투자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결과가 저희 기관으로 통보가 되었고 해당 내용인 자산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산운용 의사결정 기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동일하게 자산운용 의사결정 기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체계 면에서는 자체 관리에서 투자폴 완전 위탁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리감독 권한이 기재부 투자폴 운영위원회로 이관이 되었고, 기금운용의 관리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여유자금 규모는 작년 말에 1,262억 원에서 올해는 1,38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에 문예기금 적립금 기준으로 카운팅하던 것에서 완전 위탁형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따른 문예기금으로의 출연금까지 포함시킨 금액으로 원래 알고 계셨던 금액보다 상회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76%로 기준금리 전망 2.5%에서 최근 5년간 스프레드 0.26%를 반영한 것입니다. 스프레드라는 것은 최근 5년간의 연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MMF의 투자의 평균수익률과 기준금리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단기 자금의 목표 비중은 안정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운영을 하고 저희가 기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기자금 중심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정유동성 규모는 계산 결과 274억 원으로 계산해서 관리하고자 하고 허용위험한도는 0.1% 이하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용위험한도라는 것은 기금운용 결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0.1%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수익률 설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배분 설정은 단기자금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투자폴 MMF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중장기자금의 7.26%라고 있는 것은.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죄송한데요. 이것을 읽는다고 머리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금융 용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관리 시스템 변화가 된 것. 3가지 정도로 뚜렷하게 변화가 된 것으로 중점사항만 얘기해 주시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운용 방식에서 올해부터 기재부에서 운

영하는 투자폴로 완전 위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표수익률 이라든가 적정유동성 규모나 장기·중장기 비율이라든가 허용 위험한도는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라 투자폴운용위원회에서, 기재부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온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대해서 “0.1%니까 너무 낮으니까 올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결안건이 아니라 보고안건으로 한 이유도 조정 가능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적어도 “이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투자폴에서 잘 운용하는 것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오늘 보고안건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죠? 나머지 건은 이월하는 것으로 하고요.

성기숙 위원 : 짧게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설정금액은 그렇게 하셨는데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운용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의 투자폴로 넘겼기 때문에 리스트관리 자체도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6. 폐 회 선 언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저도 질문을 안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다가 위탁돼서 거기에서 운용하는 것이고 통보를 받고 우리 기관에서 이견이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안건들은 이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머리를 굴리시느라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 진지하게 얘기하셨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것으로 제392차 문예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회의 종료)